

世界 養 鷄 產 業 動 向

④

世界家禽學會
韓國支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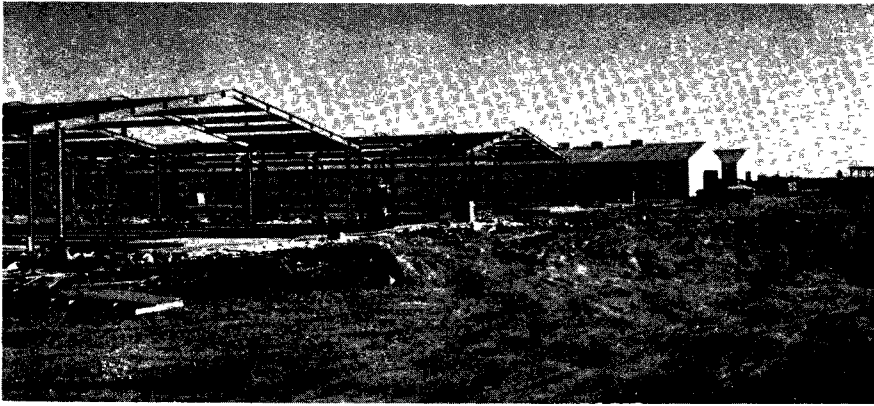
사우디의 서막은 너무 더워서 관목만이 자라고 계사는 열을 반사시킬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지어져 있다.

쿠웨이트

中東과 아프리카 나라들은 달걀과 닭고기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계산업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쿠웨이트”의 KUPCO (Kuweit United Poultry Company)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 변에 38km²의 부지를 확보하고 1980년부터 달걀과 닭고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종합 양계농장을 만들고 있다. 이 종합농장이 완공되는 1980년부터 연간 계란은 2억개 닭고기 1,500만kg을 생산하여 “쿠웨이트” 전체의 국내소비량의 25%를 충당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육추, 육성, 산란계사와 부화기, 브로일러사육장, 도제처리장 그리고 배합사료공장 까지 갖추 예정이며 네덜란드의 빅다츠만 (Big Dutchman) 회사와 합작으로 종합농장을 건설 중인데 모든 시설은 유럽과 미국의 현대시설을 그대로 모방하여 산란계사는 계란선별, 포장, 저온보관 시설로 마련된다. 계란수집은 자동식 콘베어로 계란 처리실로 옮겨져 1시간에 20,000개의 계란을 등급하고 30타스 들이로 포장을 하여 저장소로 옮기는 일들이 완전 자동으로 갖추어 진다고 한다. 여름철은 기온이 49℃까지 올라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이곳의 날씨로 닭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무척 크기 때문에 이번 KUPCO에서는 나운 외부공기를 냉각시키는 장치 (Cool Corridor)를 설치하여 계사내의 온도는 18℃로 계란저장실의 온도는 4℃로 언제나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700만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과 100만의 외국 건설업자들을 합쳐 800만의 인구를



강철골재의 두계사 모습 (쿠웨이트)

가진 이 나라는 석유의 수출에 힘입어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 전체의 평균 양계산물의 소비수준인 1인당 달걀 소비량 200개를 고려할때 이 나라의 연간 계란소비량은 16억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계란 소비량 추정은 연간 1인당 120개로 국내 총소비량은 9억 6천만개로 추산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생산 6억1600만개의 생산은 크게 부족하여 국내 채란계산업을 앞으로 계속 육성시켜야 할 사정이고 또 닭고기는 1인당 10kg소비로 국내 총소비량은 연간 80,000TON으로 현재 국내생산 28,000TON은 실제 수요에 51,000TON 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부족현상은 더운 기후조건에 의해서 양계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 것이지만 석유의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지역적인 종교의식 때문에 값비싼 쇠고기 보다도 값싼 단백질원인 닭고기의 소비는 점차적으로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예견되며 특히 가금 생산물은 전체 육류소비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같은 국내소비의 추세에 따라서 야마마 농업건설(Yamama Agriculture Establishment)에서는 네덜란드의 빅다츠만(Big Dutchman) 회사와 합작으로 이 소비추세에 대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네덜란드의 유리브리드(Euribrid) 회사의 하이섹스 산란계를 가진 6개소의 산란계 농장, 5개소의 하이브로 종계장과 20개소의 브로일러농장이 건설중이다. 이 계획이 끝나는 1979년에는 산란계사업에서 150,000수의 성계, 55,000수의 육성계, 연간 50만수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10,000수 수용의 종계장과 브로일러 생산을 위해서 100,000수의 종계와 200만수의 브로일러농장이 이룩되며 또 야마마의 계획대로 병아리 생산을 위한 부화기와 사료공장 까지 갖추어서 태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하고 다른 원료들의 조달도 여러나라와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로일러는 45일령까지 길러서 1,400g에 출하하고 산란계는 13개월동안 산란지수 250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일조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무창계사와 여름의 높은 기온에 대처하여 지붕은 열발산이 용이한 알루미늄으로 설치되었으며 분무식 냉각시설(Aerosol Cooling System)을 모든 계사에 설치하여 가장 안정된 조건으로서 닭을 사육할 예정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관리인이나 기술자들은 유리브리드나 빅다츠만회사의 주선으로 네덜란드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파견되고 있으며 방역계획은 정부에서 100%지원하여 네덜란드의 필립스두파(Philips Duphar) 회사에서 지

원반게 되어 있지만 그들 자체의 철저한 완전 방역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 아마마의 대규모 종합양계농장의 설립에 영향을 받고 알와디 (Al Wadi)는 600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3,700만개의 계란 생산과 250만수의 병아리 생산을 목적으로 농장을 계획하고 있고 알자퍼 (Al Zafer)는 연간 2천만개의 계란생산을 빅다즈만, 유리브리드, 필랴스두파 등 화란계통의 굴지의 회사들과 합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中東地域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우리나라에서도 수출 체제만 갖추어져 있다면 양계산업 프란트 수출과 아울러 양계산물인 닭고기, 난분(卵粉), 양계산물 통조림 등의 수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이들 중동지역에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와 종합무역 상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프란트수출에는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화란의 “빅다즈만” 회사나 영국의 IFIT회사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약 2년전부터 중동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회사와 수출회사들이 양계산업 프란트(Plant) 수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필자에게도 여러회사에서 문의를 해 온 바가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업

을 추진할 만한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양계 기구에 관한 산업체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종계수출도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中東進出의 유리한 기회를 가지면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양계산업분야의 계사건축, 기계기구의 제작과 설제, 종계의 수출 체제 확립등 각계열별 기술인력의 양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불가리아

연간 1억만수의 브로일러를 생산하고 국민 1인당 4kg의 닭고기를 소비하는 동구라파의 불가리아는 1975년에 75,000톤의 닭고기를 포함하여 총 가금류의 고기생산량은 115,000톤이었다. 브로일러는 14개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농장은 도계처리 시설도 갖추어진 농장들이고 13개소의 산란계 농장에서 대부분 사육되고 있는 불가리아 전체 산란계수수는 1,780만수에서 연간 18억 4천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면서 동구권의 공산진영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양계업이 발달된 나라이다.

1980년에는 연간 1억 5천만수의 브로일러 생산을 목표로 하면서 단위 면적당 많은양의 양계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1평방미터당(1평 : 3.24M²) 90kg(47수)의 닭고기 생산에서 1980년에는 빠다리와 같은 새로운 사육방법을 모색하여 1평방미터당 120~130kg(68수)의 닭고기 생산을 이룩하여 브로일러 생산에 소요되는 토지자본의 투자액을 줄일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가격구조를 살펴보면 대규모 농장의 브로일러 가격은 kg당 0.72 leva(불가리아 화폐), 일반 소규모 농장에서는 1.01 leva, 소매가격은 2 leva나 되어 대규모농장의 잇점을 보여주고 있다.

